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 시대별 대표적 디자이너와 그 특성을 중심으로 -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A Study about Bisexuality in Current Fashion

-Basis on a Representative Desig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the each period-

Associate Professor, Chae Keum Seo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lothing and Textiles Dp.

ABSTRACT

In clothing, a tendency of Bisexuality is in case of wearing clothing of the opposite sex, the mixing of modeling principle and characteristic of man and woman, the exclusion characteristic of sexuality that present sexlessness-the third sex.

They-Designer Gabrielle Chanel, YSL, Giorgio Armani-give characteristic of man's fashion to women's fashion. However, the consciousness in design is different. Chanel apply principle of man's suit to woman's wear to express authority and power about gender image, hereby she express women liberation and equality of man and woman based on social ideology through fashion especially, she express women's sexual independency and self assurance to her clothing

YSL express liberal and bold women that pursuit reasonal and liberal life in 1970. As he apply tailored suit's rigidity to women's wear, he made 'pants look' universal in women's wear through "Dress for success" in modern life.

Armani apply successful modern image to women's wear, so he express women's image of confident intellegent as well as feminine image. He focus women's new image as man living liberal and individual life excluding social category rather than will of equality of man and women.

Gernreich break sexual prejudice and release women freely, furthermore, as he express concern of sexuality pursuit liberty of mankind surpassing sex distinction with women liberty.

Gianni Versace pursuit mix and extinguishment of sexual image many-sided, and break fixed idea of sex, and reprovide feminine and masculine image. So his design tend homosexuality because he regard women's glamor and ostensible sexuality as standard of beauty, he apply this to man's wear as well as

women's wear. With this, he expresses sensitive and liberal man's image that break characteristic of Gender that symbolize power and authority in man's wear through 'Without ties'.

Key Word : 양성성(Bisexuality), 성(Sexuality / Gender), 호모섹슈얼리즘(Homosexuality), 성공을 위한 의복(Success Dress)

I. 서론

최근 세계패션은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연령이나 인종 그리고 현실과 가상(cyber)세계에 이르기까지 각 특성들이 그 경계를 허물고 통합되어 표현되는 것이다. 한 의상에 상반된 두 개의 스타일 라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나, 부드러움:거칠음, 광택:무광택등 대립되는 특성이 혼합된 소재,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가 절충된 컨셉 또는 성의 구분이 불분명한 아이템의 조합등 패션은 이분법적인 문화의 개념에서 설정된 것과 거리가 먼 무경계성의 표현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패션 경향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무경계성에서 비롯되는 성 개념의 혼돈현상은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Anne Hollender가 의복은 인간에게 성의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제시해 주는 요인이며, 의복의 정체성은 현대 패션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¹⁾ 하였듯이 복식은 그 어떤 문화적 산물보다도 인간의 성 개념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여 가시화한다. 서구 패션의 역사는 이성(異性)의 의복과 장식품을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의미 깊은 상징적 긴장으로 특징지어진다. 현대 패션의 초기부터 시대에 따라 의복을 통한 남녀 두 성간의 의복차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자유를 얻고 사회적인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페미니즘적 차원에서 남성복

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왔으며, 최근 30여년 동안 많은 남성들도 여성적인 경향을 취하므로써 외양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조화와 유희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패션 경향에서의 성의 무경계성은 그 정도나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또다른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서양을 중심으로 '남과 여'의 이분법적인 성 구분 이외에도 '중성'이라는 제3의 성에 그 의미가 부여되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점차 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추세가 대중화되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보다는 통합적 이미지로서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하여 인간 자체로서의 의미에 더 역점을 두고있는 것이다. 또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의 정규 컬렉션에서도 동성애적 경향을 지니는 호모섹슈얼리즘(Homosexuality)패션이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성의 여러 개념들이 일부 하위문화 집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주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정해야하는 시기에 이른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성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복식의 양성적 특성(Bisexuality)을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문화의 개념으로서의 '양성적 복식'은 의복에서 남성미와 여성미를 교묘하게 결합 시킴으로써 성별에 따른 구분이 모호한 옷차림을 의미하며, Fred Davis는 진정한 양성화는 인간의 성에서 생물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의복과 외모의 성적인 특별한 요소의 그 어떤 것을 철저히 말살하거나 혼합,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²⁾ 논자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이성의 복식 요소를

1) 앤 홀랜더, 채금석 역, 「의복과 성」, 서울: 경춘사(1996), p.13.

2) Fred Davis, 「Fashion,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92), p.35.

서로 차용하여 기존의 남성적 이미지나 여성적 이미지를 변질시켜 복식이 차별화된 성 이미지를 가질 때 이를 '양성적 복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문화 현상의 추이를 앞서 파악하여 이를 패션에 표현하고 그 변화를 주도해 오고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시대적 특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현대패션에서 복식의 양성성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던 1920년대와 혁신적인 변화가 모색되었던 1960년대 이후 부터 1990년대 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현대패션에 등장한 양성적 복식에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현상을 고찰한다.

둘째, 이성복식의 차용에 따른 남녀의 상관관계 및 디자인 특성 그리고 그에 내포된 이념의 차이를 고찰한다.

셋째, 각 시대별로 당시의 성 의식의 변화에 가장 심도있게 접근하고, 또한 가장 새로운 시각에서 민감하게 작품속에 표현한 디자이너로 Gabrielle Chanel, Rudi Gernreich, Yves Saint Laurent, Giorgio Armani, 그리고 Gianni Versace 등을 각각 선정하고 그들의 작품에 담긴 의식의 변화 양상을 규명한다.

이로써, 최근 대두되는 성의 이미지 혼란현상을 재조명하고 거기에 내포된 진정한 성 개념을 인식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패션의 변화를 예측해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양성적 복식에 관한 고찰

현대 복식에 있어서 남과 여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성 개념은 표현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양면성을 내포한 모든 창조적 활동의 근원이 되었다. 즉, 인간은 의복을 통해 성과 성차를 구성하

여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왔다. 복식에서 '성(性)'이라는 단어가 언급될때는 생물학적 성별인 sex 뿐만 아니라 사회가 각각의 남녀에게 기대하는 성의 역할, 성적매력, 성적충동(성욕), 성애대상의 방향성등 다양한 의미로써 각각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크게 'sexuality'와 'gender'의 두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exuality는 특히 인간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일괄하여 붙인 낱말로서 성적총체(性的總體) 즉 인간의 성에 관한 특성·행동·경향, 심리적·생리적 충동, 성적매력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gender는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남녀의 행동차이를 뜻한다. 여기에는 스스로 남자 또는 여자로서 자각하는 gender identity(성적자인)와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주위에서 기대하고 자기가 인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gender role(성역할)의 개념이 포함된다."³⁾ 복식에서는 sexuality에 근거하여 남·녀 성의 양극화의 개념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왔고, 현대사회에 들어 점차 gender와 관련된 의식의 변화로 인해 성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두 특성의 깊은 상호연관성 속에서 더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성의 공존적 개념을 가시화한 양성적 복식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뚜렷이 나타났으며, 특히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등장한 유니섹스 스타일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비중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을 혼합하거나 초월하여 패션에 등장한 표현양식은 유니섹스(Unisex),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 호모섹슈얼리즘(Homosexuality) 그리고 크로스 드레싱(Cross Dressing) 등을 들 수 있다.

1. 양성적 복식의 다양한 표현양식

1) 유니섹스 룩(Unisex Look)

3) 「한국- 세계 대백과사전」 14권, 서울: 동서문화사, (1997). pp.8283-8284.

유니섹스라는 용어는 Olden Wold 박사가 그의 저서 "The Disappearing Sexes"에서 기존의 성 개념과 다른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처음 사용하였고, 패션에서의 유니섹스 룩은 1960년대 후반 진 (jeans), T-셔츠, 캐주얼 자켓, 운동화등 남녀가 비슷한 의상을 즐겨 입는데서 비롯되었다. 유니섹스 룩은 의복을 통해 '여성미'와 '남성미'를 초월하여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현상으로서 성 개념을 탈피한 성의 혁명이었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태도 변화가 유니섹스 룩의 주된 형성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생활에서 성별의 차이가 더 이상 특징적인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기계문명과 산업화에 의해 모든 것이 가속화된 사회에서 소외감과 허무감에 빠진 사람들이 동성이나 이성간의 경쟁심리를 버리고 서로의 결속력과 동질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남녀간의 동화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⁴⁾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후반 부터 변질되고 다양화되어 중성, 앤드로지너스, 닌 섹스(Non sex), 모노섹스(Mono Sex)등으로 발전하였다.

2)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이 용어는 남성을 뜻하는 'andro'와 여성을 뜻하는 'gyn'의 합성어로 신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체 안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같이 존재하거나, 정신적인 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쪽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웅동체(雌雄同體)', '양성공유(兩性公有)'를 일컫는다. 현대에서는 육체적인 성 'sex'보다 사회·문화적인 성 'gender'에서 그 의미가 주로 통용되고 있으며, 남녀의 심리적 속성에 초점을 둔다.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이라는 상황은 전체성(wholeness), 결합(union), 통합(integration)의 추상적인 개념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이성', '공격성', '용기', '힘' 등으로 대표되는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종'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적인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완전한 인간의 이상형을 의미한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각자 자신의 성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남성적인 옷차림새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지향하거나 남성이 여성적인 옷차림새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즉, 서로의 성적 특성을 교차시켜 종래의 성 개념을 초월하므로써 색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로써 앤드로지너스 룩은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가 모두 느껴지는 양성적 이미지와 남녀 모두의 특성이 제거된 중성적 이미지를 띠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닌 섹스(non sex)한 특성을 지니는 유니섹스와 상통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전유물로써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복식을 서로 교류하여 착용함으로써 유니섹스와 차별화되고 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성역할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을 초월한 하나의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의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특정한 제한으로 부터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는데서 현대인에게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3) 호모섹슈얼리즘(Homosexualism)

그리스어로 '같다'라는 의미의 'homos'와 라틴어로 '나누다'라는 의미의 'sex'가 합쳐서 생긴 말로 동성의 상대방에게 성적인 매력과 감정을 느끼는 것을 가르킨다. '이성애'를 의미하는 'heterosexual'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용어에는 동성애적 성향(homosexual orientation)과 동성연애 성행위(same gender sexual acts)의 두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나⁵⁾. 보통 패션에서는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어 나타나는 동성애적 성향과 복장 도차

4) HARRIET 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1973), pp.34~37.

5) 기독교 사상 편집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이해", 기독교 사상, 391호, 1987,7, p.65.

행위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게 호기심을 끌기위한 의복의 이성화 경향과 의복이나 특정한 이성의 아이템을 착용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성도착(Fetishism)'의 성향 그리고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과 이탈적 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따른 유희적 성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앤드로지너스 성향이나 1970-80년대 록 음악 그룹들이 보여주었던 글램(Glam) 스타일 등을 통해 대중화되었고, 주로 가죽소재의 의상이나 콜셋, 노출이 심한 드레스, 속옷, 메이크업 등으로 표현된다. 남성복에서는 화려한 색상, 몸에 꼭 붙는 라인, 변형된 스커트, 여성스러운 악세사리 등의 착용으로 지극히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복에서는 직선적인 라인의 바디수트, 중절모와 터프한 느낌의 악세사리등으로 남성화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거칠고 강한 여성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새로운 성의 이미지를 유도하고 있다.

4) 크로스 드레싱(Cross Dressing)

크로스 드레싱은 뜻 그대로 '상호의', '교차된', '반대의' 의미인 'cross'와 '복장', '옷치장'의 의미를 갖는 'dressing'과의 복합어로 남녀가 각각 이성의 옷을 착용하는 행위를 가르키며, 이를 통해 성의 모호성을 야기시키는 행위도 이에 속한다. 이 개념은 주로 동성애적 행동양상이나 성의 해방론, 또는 문화적 저항 측면, 종교적 관습 등 다양한 사회현상이나 심리적인 해석을 동반하여 양성적 복식의 여러 개념과 현상에 관련하여 보다 포괄적인 범주에서 이해된다.

2. 여성복식의 양성적 경향

이성복식의 착용을 통한 양성적 경향은 제도적인

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불평등한 입장에 처해 있던 여성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여성들은 산업혁명 이후 거의 일방적으로 남성복의 요소를 차용하여 남성의 권위와 지위가 자신들의 여성스러운 미덕과 혼합하여 나타나는 양성적 경향을 띠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페미니즘(Feminism)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 온 여성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초기 페미니즘과 후기 페미니즘으로 나누어 그 주장하는 바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이르기 까지 진행된 초기 페미니즘은 계몽사상과 자유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남녀평등을 주장하였다. 여성의 심리체계와 신체적 능력은 본질적으로 남성과 동일하나 왜곡된 역사와 문화속에서 변질되어왔으며, 남성이 누리고 있는 사회, 문화적 영역에 여성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역사와 투쟁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었다.⁶⁾ 후기 페미니즘은 196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사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심리·신체적인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남성성과 동등하나, 본질적으로 차별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본 부정적 여성성 대신에 여성의 고유한 특성들을 긍정적으로 강조한다. 후기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평등이란 생물학적인 성(sex)보다는 사회적인 성(gender)에 초점을 두고있으며 사회 문화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여성복에서 양성적 경향은 이와 같은 페미니즘 사상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양상을 달리해 왔으며, 프랑스 혁명기간 동안에 많은 여성들이 남성복을 입을 기회를 얻게 되면서⁷⁾ 여성복식 개혁운동

6) 엄 혁, 「여성주의 미술의 논리와 현실」, 서울; 월간미술(1993.2), p.73. 강정화,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1996.11), 복식 30호, p.212, 재인용

7)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New Y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1988), p.147.

의 출발점이 되었다. 1850년대 Amelia Jenks Blumner 여사가 오랜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 바지를 제안한데 이어 1860년에 뉴욕의 여성들은 남성의 사냥 자켓에서 그 모양을 본뜬 '5번가의 Walking Dress'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어두운 색상의 자켓에 짧은 스커트와 무너없는 블라우스를 입는 남성 경향의 정장(Manish suit)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세기 후반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여성복의 양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남성복식과 유사한 더블 칼라의 자켓과 스커트로 이루어진 활동적인 투피스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지위를 강조한 것으로 여성들은 의상을 통해 자주 비밀스런 남성주의를 표현하였다.⁸⁾

19세기에 일어난 남녀평등의 주장과 이에 고무된 바지 착용은 여성복식 개혁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독특한 에로티시즘을 암시하게 되었다. 당시의 에로틱 예술이나 모델, 여배우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파괴된 바지착용을 통해 성적 매력에 호소하였다.⁹⁾ 여성의 남장은 남성 우월의식에 젖어있는 사회·문화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남성들에게 성적 매력의 자극적 요인이 되어 오히려 남성의 우월주의에 편승하는 근대여성의 이중적인 양면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스포츠 열풍은 바지가 대중적인 여성복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근대 디자인 사상가들의 이론에 입각한 개혁의상 추진운동은 여성복에 있어서 장식성을 배제하고 예술적인 조형성을 강조하며 기능적인 경향과 함께 여권을 존중하는 현대 여성복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사회개혁가들은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위생적인 이유에서 코르셋 중심으로 형성된 당시 여성복의 유행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 계층간의 갈등뿐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하여 자신들을 억압하는 지배계급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계층이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고 여성해방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초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개성을 표현하여 사랑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하며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의 동등화 현상은 1920년대에 여성복에서 '가르손느 룩(Garçonne Look)'으로 가시화 되었다. Gabrielle Chanel를 선두 주자로 하여 당시의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남성적인 요소가 차용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성정이 나타나기 이전의 어린 육체를 이상형으로 하여 마르고 납작한 가슴을 선호하였다. 'sexless, bosomless, hipless'를 추구한 의상과 더불어 유행한 짧은 머리는 더욱 남성적으로 보이게 했고 여성들이 이발소에 출입하게 되어 남녀가 대등한 입장을 시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가르손느 룩(Garçonne Look)의 양성적 모드는 옛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모더니티(Modernity)의 전형이 되었으며, 양성적 경향에 대한 동경으로 인해 이전의 어느 스타일 보다는 여성을 대담하고 혁신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1930년대에 Elsa Schiaparelli는 항상 시각적인 흥미를 추구하는 남성적인 방법에 여성적인 면모를 융합시킴으로써 대담하고 남성적인 여성의상을 디자인하였다. 1945년 그녀는 타이트한 프록 크트(frock coat)형 자켓에 높고 뾰뚱한 칼라가 특징인 툴리랜드(talleyrand) 실루엣으로 보다 강화된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의상은 Chanel의 의상과는 차별화된 양성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60년대이후 Y. S. Laurent이 그 전통을 이었고, 대담한 여성을 찬미하면서 시대적 전환기에 의복의 선입관을 뒤엎고 여성복에서의 양성적 경향의 비전

8)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ies」, London: Virago Press(1985), p.136.

9) Valerie Steele, 앞의 책(1988), p.136.

을 제시하였다. 그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성들에게는 허용될 수 없었던 판탈롱과 턱시도를 여성들에게 제안하여 '사내 같이 자유분방한 여성'을 유행시켰으며, 이어 Jacques Esterel이 짧은 판탈롱과 케이프로 이루어진 유니섹스 정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당시 양성적인 의상을 극도의 퇴폐로 간주하였던 보수주의자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다.

1970년대까지 여성복에 나타나는 남성적 이미지는 여성해방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과 똑같이 되려는 허상을 추구하는데 머물렀던 반면, 1980년대에는 여성이 주체가 된 여성중심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어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여성만이 가지는 모성적인 힘을 역설하여 후기 페미니즘과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적 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남성의 발달한 가슴과 어깨가 갖는 신체적 매력을 아름답게 받아들여 건강미를 상징하는 근육질의 신체가 새로운 미적 범주로 등장하였다.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질의 날씬한 몸매를 갖추게 된 여성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했고, 이를 반영하여 라이크라(Lycra)패션이 유행하게 되었다. 잘 다듬어진 근육이 나타남으로써 독특한 성적매력을 느끼게하는 이 패션은 남성과 같은 근육질을 여성이 갖게됨으로써 양성화된 신체미를 발휘하여 남성을 압도시킴과 동시에 육감적인 신체를 통해 유혹적인 매력을 표출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Giorgio Armani와 Gianni Versace를 비롯한 비 프랑스계 디자이너들은 여성의 매력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를 남성적인 특성과 조화시켜 주체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미지를 의상에 담아내고 있다.

여성복에서의 양성적 경향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속박'의 의미로 강요한 여성스러운 패션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데서 시작되었고, 이는 여성자신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남성의 표면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현대패션표현의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남성복식의 양성적 경향

남성복식에서 양성적 경향은 반 사회적이고 비 이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불건전한 양상으로 인식되어왔다. 19세기 초반 생산적인 부르조아 문화의 본질에 의해 의회 민주주의, 사업, 미덕, 남성다움, 애국심등을 상징하는 단정한 남성복이 등장하였다. 이는 남성들의 힘과 공격성등 남성적 이미지가 강조된 것으로 남성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기존 질서에 회의를 갖고 변혁을 추구하던 세기말의 시대적 배경속에 전통적인 부르조아적 남성상을 위협하는 변증법적인 새로운 남성상이 탄생되었다.¹⁰⁾ '뉴맨' 또는 '듀드(Dude)'로 불려진 새로운 남성패션 덴디(dandy)는 여성의 아우어글래스(hourglass) 실루엣 처럼 허리가 가늘게 강조된 자켓을 착용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외형을 나타나기 위해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거나 여성 처럼 풍성한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해 팽이 형태로 곡선이 지는 판탈롱을 입기도 하였다. 이로써 전통적인 남성상에 새로운 성적인 속성이 부과되었다. 당시의 여성들의 남성화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데 반해, 뉴맨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양극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고 새로운 미를 추구하게 된 경향은 1927년에서 1937년까지 존속했던 남성외상 개혁당을 통해 비건강적이고 제한적인 목을 조이는 넥타이, 꼭조이는 바지, 와이셔츠, 구두 등에 대한 개혁운동을 통해 편안한 바이론(Byron) 칼라로 된 블라우스와 샌들, 반바지등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남성복의 개혁운동은 여성 이미지가 강화된 양성적 캐주얼

10) 채금석, 「현대복식미학-표현주의에 근거한 양면가치를 중심으로」, 경춘사(1995), p.301.

복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당시의 패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기도 하였다.¹¹⁾ 이로써 미국은 보다 여성적인 이미지가 첨가된 캐주얼한 남성복의 주요 영향국가로 자리하였고, 남성복은 더욱 양성적인 모드로 변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디자이너들은 남성복을 패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가벼운 소재와 주름진 셔츠, 부리가 넓은 바지, 캐주얼 의상과 세퍼레이츠 그리고 보석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 보다 부드럽고 여성적인 룩을 제시하였다.¹²⁾

남성복의 양성화는 양성 상태에 근접하는 것을 원한다기 보다는 남성적인 성정이 형성되기 이전인 소년기를 동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데 약간 호트러진 소년의 헤어 스타일, 스넵챙이 달린 모자, 이튼교의 자켓, 줄무늬가 있는 학교 넥타이, 툰다운 셔츠, 헐렁한 모직 바지와 멜빵등 성인이 이전을 상징하는 아이템들이다.¹³⁾ 이는 애매한 성정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전형적인 남성 아이템과 동일한 치장으로 간주되어 선호된다.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소년같은 양성적인 경향은 남성에게 있어 잠재된 호모 에로틱한 충동을 나타내는 동시에 여성에 대해 힘의 상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고 여겨진다. 1950대 청소년 하위 문화집단인 테디 보이즈(Teddy Boys), 모즈(Mods)나 1960년대 말에 등장한 스킨 헤드(Skin Head) 등의 양성적인 복식은 동성연애자인 게이(gay)나 레즈비언(lesbian)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의견을 입증해 주고 있다.

1970년대는 노동자들을 상징하던 진(jeans)이 디자이너 Calvin Klein에 의해 패션계에 등장하여 양성적인 이미지의 유니섹스 의상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의 남성복식은 실크와 벨벳을 즐겼

던 19세기 초의 멋쟁이 같이 환상적인 모습을 하여 흥미로운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Boy George, Prince, Michael Jackson과 같은 팝 스타들은 화려한 화장, 여성스런 주름과 커프스로 강조된 옷차림, 여성적 헤어스타일로 양성적인 심미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1970년대의 강한 남성 이미지는 80년대에 보다 부드러워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¹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각기 독특한 패션을 드러내는 양성화된 남성성의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였다. 술 장식과 비드, 꽃장식이 남성복에 적용되었고, 남성 수트는 더욱 가늘어지고 부드러운 선으로 변하였다. Jean Paul Gaultier, Giorgio Armani, John Galiano, Takada Kenzo, Rei Kawakubo 등의 디자이너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유니섹스 패션의 주제를 가지고 좀더 부드럽고 여성인 소재를 사용하고 셔츠와 바지에서 흘러내리는 선을 이용하면서, 심지어 스커트를 남성패션에 제안하기도 하여 양성적인 모드를 선보였다. 양성적 경향으로 변화한 새로운 남성 이미지는 '모순된 요소의 합성'으로 전통적인 남성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페미니즘의 충격과 변화하는 여성들에 대한 반발일 뿐 아니라 남성성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Ⅲ.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의 시대적 특성

1. 1920년대 Gabrielle Chanel의 Garçonne Look

Chanel 의상의 창조성에는 계층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회주의적 이념과 리얼리티가 내재되어 있

11)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1994), p.189.

12) Vicky Carnegie, 「Fashion of Decade:The 1960's」, New York: Facts on File (1990), p.57.

13) 채금석, 앞의 책 (1995), p.302.

14) Vicky Carnegie,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New York : Facts on File(1990), p.18.

다¹⁵⁾. Chanel에게 있어서 의상 창작은 당시 새롭게 변화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낮은 사회계층 출신의 여성인 자신의 갈등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이며 수단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부유한 남성들의 세계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들과의 사교생활은 신분상승의 기회가 되었다. 남성에 대한 굴욕의 고통을 치르면서 상류사회에 진출하게 된 Chanel은 당시 여성의 성적숙성을 강조한 고급 창녀들의 과다하게 장식된 옷을 거부하고 그녀가 선망하는 귀족 남성들이 소유한 멋과 품위를 추구하였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한 그녀는 저지(Jersey)로 만든 수병의 상의나 남성들의 풀 오버(pull over)를 구입, 이를 손질하고 약간의 트리밍을 첨가하여 주름 스커트와 함께 입고 그녀 스스로 모델이 되어 거리에 나섰고 이는 곧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Poiret가 성숙한 여성미를 표현한 모드를 창조한 것에 대해 Chanel은 “여성은 새파랗게 젊어야 한다.”면서 모든 여성들이 10대나 20대 정도로 젊어 보이게하는 교묘한 기술을 고안 하였다. 이는 당시의 프랑스 여류 작가인 Victor Margueritte가 소설 ‘Garçonne’에서 그려낸 주인공의 모습과 똑같은 신 여성의 모습이었다.

1920년대에는 남녀 디자이너 모두가 작은 가슴과 드러나지 않은 힘을 가진 몸매를 이상형으로 하여 소년취향의 단순하고 편안한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이는 복식사상 최초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신체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은 채, 유연하게 흐르는 연속적인 하나의 선으로 전체의 몸매를 강조하기 시작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Garçonne Look으로 1920년대를 대표하는 Chanel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탈피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한 직업여성의 선두주자였다. Chanel은 자유로워진 여성의 화신처럼 보였으며,

인간존재에 대한 표현으로 보다 강하고 독립적인 남성과 같이 옷을 입었다. 다른 여성들이 자신과 닮기를 바랐던 그녀는 남성 디자이너들에 의해 지배되었던 패션계를 뛰어난 시대적 감각과 천재적인 재능으로 주도해 나아갔고, 단순한 드레스 메이커로서가 아니라 패션리더로서 자신의 패션의식을 실현시켰다.

Chanel은 여성패션을 로맨틱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일체의 구습을 타파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영국 남성복의 특성을 취해서 여성적인 것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자신이 열망하던 남성적인 힘을 의상에 부여하였다. Chanel의 스타일은 우아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동시에 한때에는 우아함과 거리가 먼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편안함, 넉넉함, 그리고 실용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녀의 목적은 움직이기 편안하고 건강하며 강인한 몸매에 어울리는 수트와 드레스를 만드는 것이었고 남성복의 스타일이나 세부요소들을 차용해서 스포츠 자켓을 오버코트로 바꾸고 테니스 스웨터를 저지 드레스로 변화시킴으로써 여성복은 활동성이 고려된 현대적 의상으로 변모하였다. 고객의 생활에 따라 달라지는 욕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디자이너의 예술적 수완의 필수요소임을 잘 인식하였고 단순하고 우아한 양성모드를 창조함으로써 진정 자유롭고 편안한 의상을 만들어 여성복의 지배적인 흐름을 전환시켰던 Chanel은 과거와 반대되는 정의의 미적(Aesthetic) 모더니스트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간결하고 단순한 의상미로 여성의 댄디즘(dandism)을 창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시의 사회체제안에서 기득권을 소유하지 못했던 낮은 사회계층 출신의 여성으로써 Chanel이 겪었던 좌절과 갈등이 내재되어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귀족남성들의 권위와 품격의 상징인 댄디풍을 여성복에 적용하였다(사진 1). 그녀가 창출해낸 여성의 댄디즘은 모든 것이 상징적인 힘과

15) 채금석, 앞의 책 (1995), pp.91-95.

연관되어 있다는 철학과도 일치하는 것이다.¹⁶⁾ 이로써 Chanel은 남성복에 여성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양성적인 경향의 의상을 만들어 냈으며, 성적 자기 확신을 유지시키고, 주관적인 즐거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한 여성으로서 패션 디자인을 하면서도 자기자신을 강력한 남성적 형상으로 명백히 인식한 Chanel의 스타일은 남성 및 여성의 본질에 의한 훌륭한 결합을 대표한다.¹⁷⁾

1950년대엔 시각적으로 여성적인 면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Chanel은 여러가지 색의 부드러운 모직을 이용하여 그 유명한 심플수트를 만들어 내었다. 이 다양한 색상의 간소한 정장은 육체적인 기쁨을 억제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자기 소유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마와 함께 입을 수 있는 여성용 자켓이나 승마용 수트는 현대사회에서 순수한 여성의 성적인 독립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의상이 되었으며, 마침내 남성적인 요소를 언급하지 않고도 여성의 독립을 표현할 수 있었다.

Garçonne Look의 의미는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된 여성상의 표현인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복의 아름다움을 과감하게 파괴하고 '여성다움'의 개념에 전면적인 혁명을 가져온 데 있으며¹⁸⁾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하였다. Chanel은 여성복에서 남성의 gender측면에서 '남성적인 힘과 권위'를 나타내면서도 여성의 자의식과 자존감을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Chanel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젊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삶을 누리는가를 보여 주었고, 자신의 직업적인 노력으로 이룩한 부와 친구들, 사회적 명예를 얻음으로써 만족하였다. 그녀의 의상들은 바로 '20세기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았던 최초의 여성'인 Chanel이 이루어낸 자유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2. 1960년대 Rudi Gernreich의 Unisex Look

1960년대는 복잡해진 사회양상과 더불어 젊은이의 반항적이고도 혁신적인 문화가 형성된 시기였다. 인간소외현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더불어 여성 해방운동과 인종차별 문제, 반전운동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예술전반은 이전의 형식에서 벗어난 전위적인 경향이 나타나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풍조가 만연하였다. 그 새로운 시도중의 하나가 진(jeans)과 T셔츠, 캐주얼 자켓, 운동화, 남녀의 비슷한 헤어 스타일 등으로 시작된 유니섹스 룩이었고 의상의 디자인이 남성을 위한 것인지 여성을 위한 것인지는 더 이상 중요시 되지 않았다.

당시 유니섹스 룩을 보다 전위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에서 제안하였던 Rudi Gernreich은 나이든 여성에서 10대 소녀들에게 이르기 까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고 순수한 창작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복식사적 업적은 20세기 초 Chanel이 그러했듯이 20세기 후반 반세기 동안 패션의 철학



(사진 1) G. Chanel 「CHANEL- THE Couturiere at work」, P.14.
- 남성적 Gender 이미지가 강화된 여성 Suit.

16) Valerie Steele, 앞의 책 (1988), p.41.

17) Carolyn Heibrun, 「Toward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Knopf (1973), p.206.

18) 채금석, 앞의 책 (1995), p.315.

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제안된 패션의 가능성을 무한한 영역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은 남성의 아래에 존재하는 억압적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와질 가치가 있으며, 남성의 옷과 여성의 옷은 상호교환적이므로 그 두가지가 진실로 성의 평등함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며 또 유용한 옷이라면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지 않고 편안해야 한다.”¹⁹⁾고 하였다. 따라서 패션은 즐거움 자체이며, 나체 또한 더 이상 부도덕한 것으로 취급되는는 안된다는 패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그는 인간의 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한 매우 개방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성적 관심은 숨김없이 표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자신이 동성애자는 아니었지만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많은 사회적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Gernreich은 미래의상에 대하여 “미래의 여성들은 보석과 화장품 그리고 의상을 남성들과 똑같이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원칙은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집중하여야 하는지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는 것”²⁰⁾이라고 하면서 의복은 남성복이나 여성복이나 그 어느쪽도 구별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은 물론 남성도 치마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패션의 혁명기로 불리우는 1960년대에는 여성의 성적 상징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당시 여성의 가슴은 신체적인 면에서 보다는 미용적인 측면, 더 나아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으며, 일부 혁신적인 사람들은 여성의 가슴은 여성의 신체와 정신의 자유를 위하여 노출되어야 한다는 의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들은 여성의 유방은 오래도록 성적인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인간의 의도였을 뿐이며 그러한 관념은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속에서 1964년 Gernreich는 성적 특성이 극도로 배제된 남녀 토폴리스(topless) 수영복을 발표하고 bra free swimsuit의 원형과 tank top등 억제된 여성복의 경향을 좀더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성이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자유로우려면 가슴이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가슴이 노출되고 가슴 바로 밑에서 시작되는 'Balinese Sarong'를 디자인하였다. 계속해서 Gernreich은 'no-bra'를 기점으로 하여, no-sides bra, no-front bra, no-back bra 등 과장되게 가슴을 부풀린 브라(padding boning)와 Topstiching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해주는 편안한 바디 웨어를 만들어 내어 성공을 거두었다. 성에 대한 독특한 그의 시각은 라인이 없는 니트 수영복, 투명한 의상 그리고 노출이 많은 드레스등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성적으로 은밀한 대상이었던 여성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회적 통념과 속박에서 여성을 자유롭게 해주었고, 이로써 남녀가 성적 편견에서 동등해질 수 있는 Unisex 룩의 진정한 의미가 충족되었다.

유니섹스 의상을 적극적으로 발표한 Gernreich은 1970년대에는 남녀모두가 메이크업을 하는 유니섹스 룩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사람들이 선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유니섹스 룩이 평화로운 공존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ernreich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Fashion과 예술'에 관한 EXPO에 충격적인 유니섹스 룩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머리와 체모를 모두 제거한 남녀 두 모델의 전신에 살색과 똑같은 색조의 화장을 시켰다. 이상태 그대로가 동등한 인간에게 입혀진 의상이 되었고, 조각상 같이 포즈를 취한 두 모델은 그 어떠한 성적 이미지도 표현해내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의상에 부여된 도덕관념에 도전하였고 자신의 풍부한 표현성을 위해 파격적인 노출과 특이한 실루엣과 소재를 적극적으

19) Peggy Moffit and William Claxton, 「The Rudi Gernreich Book」, New York : Rizzoli(1991) pp.19-20

20) 앞의 책(1991), p.27.

로 도입하였다.

그는 근본적으로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은 옷이 아닌 사람 자신에 있으며 의복은 기본적인 형태만 되면 남녀공용으로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창작 의도는 여성이나 남성이나의 성별(sex)의 표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성적 특성을 극도로 배제하여 하나의 인간으로 표현한데에 의미가 있다(사진 2). 이러한 그의 창작의도는 Chanel의 남성화된 여성복의 양성적 경향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30여년 앞서 제안된 그의 많은 견해들이 1990년대 현재의 패션경향과 일치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성의 인식에 대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패션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3. 1970년대 Yves Saint Laurent의 Le Smoking

현대 여성들이 기존의 패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선택한 옷들이 바로 전통적인 남성의 의복인 바지, 셔츠, 재킷, 스웨터, 청바지, 폴란넬 셔츠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다.²¹⁾ 이는 남성복을 여성복보다 바람직하게 보이게 하는 보다 "근대적인" 진보된 형상의 진지함이 내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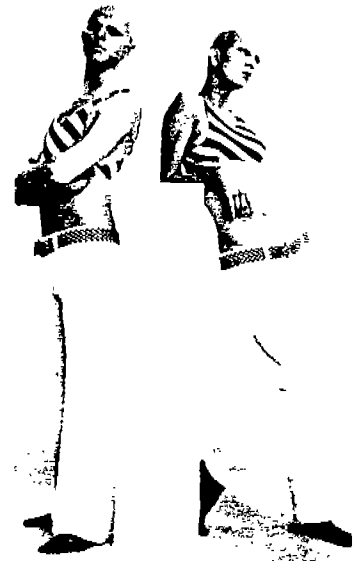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던 1970년대는 합리적인 삶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단순하고 자유로운 디자인이 각광을 받았으며, 자유를 표방하는 젊은이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보수적 성향의 패션에 도전하는 기능적인 패션이 적극 받아들여졌다. 여성들은 남성의 블레이저(blazer) 자켓, 노치트 라펠(knotched lapel), 커프스(cuffs), 그리고 남성용 셔츠를 증절모와 함께 착용하는 등, 테일러드 수트를 모방한 스타일과 부드럽고 긴 팬츠를 선호하였다.

유니섹스 모드와 남녀평등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

었던 이 시기에 Y.S Laurent은 남성들의 전유물로서 여성들에게는 허용될 수 없었던 판탈롱과 턱시도를 여성패션에 제안하여 '자유분방한 사내같은 여성'을 유행시켰다. 여성복에서 바지는 1911년경 나타났는데 이는 편리함이나 스포츠 활동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오퍼꾸뛰르에서의 진보된 패션의 가능성 차원에서였다. 1930년대에 영화배우 Marlene Dietrich가 판탈롱 수트를 과감하게 착용하였던 그 당시까지도 여성에게 있어서의 바지는 예외적이고 특이한 것이었으며 때로는 상류계층의 스포츠 웨어나 양성적 경향을 강조하는 관능적인 자극으로 남아 있었다. 30년대의 몸에 밀착된 바지 스타일은 여성에게 남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다가 보다는 도발적인 에로티스즘을 야기시키는 모순된 효과를 내었던 것이다.

1960년대에 이르러 Y.S Laurent 은 Chanel이 후 최초로 범세계적으로 채택되어 유행된 팬츠룩을 디자인하여 바

지패션의 승인을 이루어내었다. 그는 대담한 여성을 찬미하면서 시대의 변화기에 의복의 선입관을 뒤엎고 애매모호한 자신의 양성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양성적인 의상을 극도의 퇴폐로 간주하던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으나



(사진 2) R. Gemreich, 「The Rudi Gemreich Book」, P.29.
- 남녀의 Sexuality가 극도로 배제된 Unisex Look

21) 앤 홀렌더, 앞의 책 (1996), p.58.

이 양성적 정장은 혼돈의 세계에 일고 있는 성의 평등에 대한 열망에 부응한 것이었다.²²⁾ 펜츠 수트의 유행은 유니섹스 모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지배적인 남성상과 유약한 여성상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의 이러한 창작성은 E. Schiaparelli, C. Balenciaga, C. Dior, G.Chanel의 영향아래 받아들인 '현대적인 우아함'에 대한 개념과 1920년대 여성해방을 수반했던 시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²³⁾

1962년 처음 소개된 그의 바지패션은 여러차례 재등장하여 그의 대표적 디자인으로 자리하였다. Y. S. Laurent은 1966년 남성용 디너수트의 구성요소를 여성 의상에 도입한 다양한 시각의 텍시도를 제작하여 여성복의 남성적 이미지를 지닌 바지패션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는 여성의 드레스와도 같이 남녀 모두를 위해 한 종류의 직물로 만든 테일러드 수트가 격식을 갖춘 의례적인 룩으로 발표되었다.

야회복을 뜻하는 "Le Smoking"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그의 테일러드 수트에는 격식을 갖춘 엄격성이 부여되어 있었고 그것은 남성복에서 최고의 품질과 조화를 추구하였던 댄디의 진수였다. 오늘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단순함'과 '부유함'이라는 두 영역을 연결해주고 있으며, 이성을 혼합한 양성적 의상의 창작에도 그 근원이 되고있는 것이다. Y.S Laurent은 여성복에서 댄디 이미지를 가장 잘 활용한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전개시켜 나아갔다.

남성의 수트는 폭력이나 수동성에 물들지 않은 자신만만한 남성성을 표현하고 외교, 협약, 시민성, 물리적 자기조절 등을 암시한다. 또한 목적이 있는 발전을 반영하며 자체적으로 강한 성적 호소력을

지닌 단순화된 역동적 추상성이라는 근대적 외관을 지녔다.²³⁾ 그러므로 남성 수트를 기초로 하여 고안된 여성의 수트는 지성미를 추구하고 자립심이 강한 전문직종 여성들에 의해 애용되었다. 여성모드에서 주요 흐름이 된 수트는 남성 수트의 변형이었기 때문에 성숙되고 자아존중을 표현하는 형태를 취하므로써 여성수트의 관능미는 아주 신중한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남성의 수트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남성수트의 기본형태와 직물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여성수트에도 근대 이후 남성이 수행해왔던 사회적 성적 특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바지가 여성들이 착용할 수 있는 복종의 하나로 자리하였고, 여성들은 스커트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의복의 종류들을 변화시켜 자신들의 외모에 아주 큰 뉴앙스를 주면서 조화시켜 나아갔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사회적 통념을 거스른 패션은 여성에게 대담한 관능성을 부여한다. Y. S. Laurent의 테일러드 수트 또한 남성의 역할을 대변해 주는 의상을 여성에게 적용시킴으로써 그속에 감추어진 여성적 특성을 부각시켜 색다른 관능성을 유발하였다. 즉, 여성의 신체적 성(sex)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성(gender)의 이미지를 공존시킨 모순된 결과였다(사진 3). 1970년대 이후 그는 테일러드 스타일을 보다 화려한 여성적인 터치로 응용하여 남성적 이미지와



(사진 3) Y.S Laurent, 「Exotismes」, P.123. - 남성적 Gender 이미지와 여성의 관능성이 공존하는 Tailored Suit.

22) Yves Saint Laurent, 「Exotismes」, Paris: Musées de Marseille -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1994), P.34.
 23) 앞의 책, pp.38-40.
 23) 앤 홀랜드, 앞의 책(1996), p.152.

여성의 관능성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양성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Modern Dandy' 또는 'Eccentric Dandy'²⁴⁾이라는 개념을 형성하였다.

Y. S. Laurent의 여성을 위한 테일러드 수트는 현대생활에 적응해 나아가는 여성들의 변화를 반영한 대표적인 예가 되었으며, Chanel이 신체적 자아소유(self-possession)의 개념을 표현하였다면, 그는 성공을 위한 의복(Success Dress)을 암시하는 의상을 창조하였다.

4. 1980년대 Giorgio Armani의 Mannish Suit

1980년대에는 어느 시기보다 활발히 양성화된 패션이 형성되었으며 주로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20대와 30대 초반의 남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드가 출현하였다. '여피(yuppie-young urban professionals)'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들은 자신의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부유한 계층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도시의 젊은부류로 이들을 위해 제안된 의상은 근본적으로 남성 실루엣에 근거하고 있었다. 특히 어깨선을 살린 수트가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Armani는 이러한 패션을 주도한 대표적 디자이너로 여성복에서 넓은 어깨에서부터 여유있게 흘러내리는 고적적인 실루엣을 통해 허리를 감추고 힙을 작게 보이도록 하는 자켓을 디자인 하였다. 이 의상은 남성적인 옷차림에 여성적인 감각을 더한 남성복 경향의 표본으로, 남성적인 gender 이미지의 걸옷을 통해 남성적인 공격성을 여성적인 부드러운 특성으로 중화시켰으며 단지 머리 스타일과 화장, 다리의 노출 등으로 여성성을 표현함으로써 양성적인 경향을 창출하여 Y.S Laurent의 양성적인 복식과 차이를 보인다.

여성복에 남성복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현대인

들의 클래식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Armani는 종종 '80년대의 Chanel'이라고 불리운다.²⁵⁾ 그의 의상이 Chanel과 같이 스포츠 웨어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아닌 남성복에 근원을 두고 표현되므로써 꾸뛰르 전통과의 단절을 대표한다.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편안함이 담겨 있다. Armani는 남성복이나 여성복이나 똑같은 창작태도로 비지니스 웨어와 레저웨어 사이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성의 의복에서 차용해온 요소들이 완벽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기존의 의복에서도 역할과 기능을 다양하게 실험하므로써 아름다움을 재창조하였다.

Armani의 디자인 경향은 남성적인 직선 스타일의 정형화를 추구하여 꼭맞는 어깨를 강조하였다. 반면 옷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개방적이며, 남성복의 주 소재인 울을 여성복에서도 주로 사용하여 중간색이나 동색계열의 어두운 배색을 통한 차분한 이미지였다. 자켓과 팬츠로 이루어진 수트에 셔츠 블라우스를 조화시키고 자켓을 주요 아이템으로하여 모든 디테일이 배제된 디자인을 위주로 하며, 악세사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과도한 사치의 화려함을 없애주고 안락을 강조하여 옷의 원초적인 우아함을 달성하였다(사진 4).

이러한 Armani 스타일은 엄격성을 배제하며 섬세하고



(사진 4) G. Armani, 「Couture - The Great Designers」, P.410. - 여성복에 남성적 힘을 부여한 Mannish Look.

24) 가재창, 「패션발상 트레이닝」, 서울 : 정은 도서(1993).
 25)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 2」, 서울: 라사라 출판사(1992). p.170.

고급스러운 테일러링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아이টে임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들어 그는 독특한 재단법으로 블레이저를 헐렁하게 주름지고 안감을 대지 않은 편안한 것으로 바꾸어놓았다. 이러한 그의 여성용 블레이저는 1980년대 이후 가장 인기 있는 아이টে임으로서 바지이나 스커트를 이에 조화시킴으로써 '성공을 위한 의복경향(Success Look)'을 대표하였다.

또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옷으로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의 구속에서 벗어나게함과 동시에 남성복을 응용한 바지 수트에서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단정한 여성의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의 남성복 경향(Mannish look)은 성공한 여성들이 가장 입고 싶어하는 옷인 동시에 외모보다 지적 분위기로 자신의 진면모를 인식시키고 싶은 현대 여성의 의식을 잘 반영하였다.

그가 보여준 남성복 경향(Mannish look)은 남녀 평등에 초점을 맞춘 여성해방을 강조하는 70년대식과 차별되어 품위와 격조의 상징으로 우아하고 자신감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80년대의 여성을 가장 적절히 표현해낸 것이다. 이것은 성역할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개성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새로운 이미지로 담아낸 것이라 하겠다.

5. 1990년대 Gianni Versace의 Homosexualism

1980년대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Versace는 다른 디자이너들과는 색다른 접근 방법으로 패션을 이해

하고 창조하였다. 그는 현대문화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자극적인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그것을 풍부하게 도입하였다. "패션 디자이너는 시대의 기분을 헤집고 들어가 감성이라는 가위로 천을 자르고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옷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야만 튼 런너가 될 수 있다²⁶⁾"는 그의 말은 현대의 경향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를 대변해 준다. 매 시즌마다 지성과 경박함, 호화로움과 소박함, 클래식과 초현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등 상반된 요소가 절묘한 조화로 배합되어 나타나는 의외성으로 새로운 유행 경향을 창출시켰다. 그가 의도하는 것은 정형화의 탈피로 자아 의식이 강한 의상을 창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특성으로 인해 1982년 추동 컬렉션을 계기로 Versace에게 '신 바로크주의(Neo Baroque)'라는 용어가 주어졌다. 이것은 그가 과거의 바로크 형태를 모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작품속에서 자유로움과 창작성을 표현하는 기법이 바로크적²⁷⁾이라는 의미이다. 즉, 모호한 것을 좋아하고,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을 합쳐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 다의성 또는 환상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Versace의 패션언어를 일컫는다. 그의 신 바로크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첫째 요소는 그가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무대의상'과 같은 경향이다. 그의 의상들은 평상복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보여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특한 수공예적 요소를 통하여 인체의 장식품을 배열한 상자처럼 만들고 특수한 소재, 색상, 실루엣등을 통해 감성이 넘치는 옷을 만듦으로써 강렬한 성적 매력과 모호성을 지닌 육감적 매력을 표출하였다. 또한 오페라와 록큰롤의 두가지 성질을 합하여 새틴으로된 크

26) 호리에 유리꼬, '천재 베르사체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향방', Fashion Forum(1997.10), 삼성패션 연구소, pp.20-21

27) 20세기초 유명한 예술비평가인 Heinrich Wölfflin은 예술형태를 분석하는 두 가지 기본 범주로 Classic과 Baroque를 제시했다. 이 두가지 개념은 역사적으로 특정시기에 등장했던 예술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Wölfflin은 이 두 가지 범주를 구별지을 수 있는 다섯쌍의 구조를 설정하여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Classic은 예술형태상에서 정확성, 완벽성, 통일감, 깊이감, 명료성을 추구한 것이며, Baroque는 Chromaticism 선호, 개방적 형태와 표면의 특성중시, 다의적·이중적 의미, 유희성 선호등의 특성을 개념짓는 범주이다..

리놀린 스커트에 진으로 된 자켓을 함께 착용시키거나 우아하고 클래식한 의상과 가죽이나 진류의 의상을 조화시켰는데 이는 전통적인 여성적 이미지와 현대적 남성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보다 전위적이고 복합적인 복식의 양성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Gianni Versace는 특히 패션의 성적 특성(sexuality)과 연관된 바로크적 다의성을 계속 탐구해 나아갔다²⁸⁾. 그는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강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매우 자제력이 있는 성적 주체로 표현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즉, 그의 의상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는 지적인 여성인 동시에 비탈스런 내면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여성스러움을 가진 여성상을 담고 있다. 그는 여성의 몸의 곡선을 교묘한 컷팅으로 강조하고 지나치게 몸에 붙는 스타일을 통해 농염한 매혹적인 외형을 창출하였다.

현대생활 속에서 남녀의 성역할이 동등해지면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로 '여성을 실제 남성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여성다운 감각을 뚜렷하게 강조시키고, 보존하며 자의식이나 자존감 또는 자기 소유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Versace는 이러한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패션현상의 핵심을 파악하여 여성만이 가진 성적특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power를 부각시켰다. 이로써 여성성을 회생시키지 않고,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추가한 새로운 방식으로 보다 흥미로운 여성상이 패션계에 등장하게 되었다(사진 5).

Versace의 또다른 특징은 남성복과 여성복 모두 동일한 스타일과 테크닉을 적용하고 동일한 소재로 제작한다는 것이다. 20세기 패션이 여성 중심인데 반해, Versace의 패션의식은 남성과 남성복이 여성과 동등한 본질을 이루어, 여성적인 관능성을 남녀 모두에게 도입시켰다. 이는 그의 개념으로 이미 남

녀 의복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남녀 의상 모두 체형에 꼭맞게 재단하여 선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며, 남성복에서 화려한 컬러의 조화와 여성스러운 요소들을 대담하게 적용하였다. 강렬한 컬러인 빨강을 체크 처리한 스포티한 정장에 단추와 지퍼 그리고 샌들과 악세사리로 연출하거나 밝은 노란 자켓과 셔츠에 원색의 티셔츠를 함께 조화시키는 등 직물과 강렬한 컬러의 조화가 유럽의 이미지와 함께 성이 혼합된 독특한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이는 Homosexual 패션경향의 전형인 것이다. Versace는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관능적이고 과시적인 매춘부에 두고 'pretty women syndrom'²⁹⁾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Ken과 Barbie 인형처럼 여성적 이미지를 남성복에 같이 적용하여 컬렉션을 구상·발표함으로써 남녀 한쌍을 이루는 통합된 패션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여기서 매춘부의 이미지를 남성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육체미를 과시하고 감성적이며 화려한 남성인 'Men without ties'를 만들어 내었다. Versace의 남성 이미지는 전통적인 남성셔츠를 벗고 드레

이프 진 셔츠를 입으며, 가죽과 금속장식을 부과시킴으로써 성도착적 유형(Fetish-type)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남성의 가혹한 의무를 탈피하고,



(사진 5) G. Versace, 「Versace - Signature」, P.13. - 남녀모두 관능성을 강조한 복합적 Sexuality 이미지의 Suit.

28) Gianni Versace, Omar Calabres, 「Versace Signature」, New York: Abbeville Press Pub (1991), p.27

29)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Gianni Versace」, New York: Abrams (1997), p.151

자유롭고 감성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정당화시킴으로 해서 전통적인 남성상에 혁신을 가져왔다.

그의 Fetishism적 경향은 들셋, 가죽, 고무, 인조가죽, 긴 타이트 스커트나 slit 처리가 된 드레스 등을 통해 활발히 발표되었다. 또한 Versace는 여성에 있어서 몸에 꼭맞는 검정 드레스와 스타킹, 가죽 의류, 썩시한 언더웨어, 가터벨트 등을 작품속에 다양하게 응용하여 복합적인 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신축성 있는 소재로 만든 의상을 통해 건강하게 단련된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것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근육질의 육체미를 여성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남녀의 성 이미지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양성적 복식의 색다른 시도라고 생각된다.

Versace의 의상에 나타난 양성적 경향은 기존 디자이너들의 이성적이고 상징적 기법과는 달리 남녀간의 성적 특성(sexuality)에 초점을 맞추어 관능성을 공유함으로써 20세기 이후 형성된 성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하였으며, 보다 풍부한 감성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내면세계를 존중해 나가고자 하는 현대인의 자기 신뢰에 대한 은유법인 것이다.

IV. 결 론

현대패션에 등장한 양성적 복식의 표현양식은 인간의 신체적 성(性)에 대한 총체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Sexuality'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남·녀의 행동차이를 의미하는 'Gender'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식의 변화로 인해 다양화되고 있다. 이분법적인 성의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성의 공존적인 개념을 가시화한 양성적 복식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Unisex Look, Androgynous Look, Homosexualism, 그리고 Cross Dressing 등이 대표적이다. Unisex Look은 복식에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여성미'와 '남성미'를 초월하

며, 사회 활동상 성별이 드러나는 외모의 특성을 배제하고자하는 의미가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중성, Androgynous, Non-sex, Mono-sex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Androgynous Look은 Gender 측면에서 주로 통용되며, 남·녀의 속성을 모두 가지므로 인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인간의 이상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특성을 상징한다. 자신의 성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성의 전유물로서 명확히 구분되는 복식을 상호 교차하여 착용하는 점이 유니섹스와 차별화 된다. Homosexualism은 동성을 상대로한 성적인 매력을 의미하며, 복식에서는 여성이 남성화 되고 남성이 여성화되어 나타나는 동성애적 성향과 복장 도착을 지칭한다. Cross Dressing은 남자가 각각 이성의 옷을 착용하여 성적 모호성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나 심리적인 해석을 동반하여 양성적인 복식의 여러 개념과 현상에 관련하여 포괄적인 범주에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양성적 복식은 페미니즘 이념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해방을 남성적 특성에 대한 선망과 동일시하는 초기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적인 스타일을 거부하고 남성 복식을 모방하는 경향이 등장하였다. 스커트 대신 팬츠와 테일러드 재킷, 셔츠, 넥타이, 짧은 머리스타일, 노 메이크업등이 이에 속한다. 남녀의 성적특성을 인정하는 후기 페미니즘의 반영으로 여성복의 장식적 특성과 남성복의 기능적인 특성을 혼합하여 표현하는 통합주의적인 경향 즉 하나의 의상에 양성적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의상경향이 나타났다.

여성복에서의 양성적 경향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속박'의 의미로 강요한 여성스러운 패션으로 부터 탈출하고자 한데서 시작되었고, 남성적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여성자신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남성의 표면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키기도 하며, 또한 그 속에 감추어진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여 의외의 복합적인 에로티시즘을 야기시키

기도 한다.

남성복에서의 양성적 경향은 반 사회적이고 비 이성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동기로 시작되었던 여성의 경우와 반대로 유희적이고 장식적인 일면을 수용하여 산업사회 이후 남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의무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복합적인 감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복식에서 양성적 경향은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경우, 남녀의 복식 특성이 혼합된 조형요소와 원리가 차용된 복식을 착용하는 경우, 성구분을 할 수 있는 모든 성적 특성이 배제된 복식을 착용하여 제3의성인 중성을 나타내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디자이너 G. Chanel, Y. S. Laurent, G. Armani 등은 여성복에 남성적인 특성을 부여한 경우였으나 그 디자인에 담긴 의식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남녀의 성적 특성을 제거하여 제 3의 성을 표현한 디자이너는 Rudi Gernreich가 있으며, Gianni Versace

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신체적 Sexuality의 특성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동성애적인 Homosexuality 경향을 보인다.

① Chanel은 여성복에서 과도한 장식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거부하고 남성의 Gender 이미지에 관련한 권위와 힘을 표현하고자 하여 남성 정장의 요소를 여성복에 적용하였다. 이로써 패션을 통해 사회적 이념에 입각한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표방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성적독립과 자기확신을 의상에 표현하였다.

② Gernreich는 성적편견으로부터 탈피하고 여성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방시키며, 더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성적 관심을 표출하여 여성해방과 더불어 성별을 초월한 인간 전체의 자유를 추구하였다. 그는 오래도록 감추어졌던 나체를 패션의 대상으로 대담하게 표현하였고, 남녀의 신체적 특성이 완전히 배제된 독특한 Body Wear의 Unisex Look을 통해 성차를 극복한 하나의 인간을 창조해냈다. 이러한 그의 패션 비전은 매우 혁

<표 1> 시대별 대표적 디자이너와 양성적 복식의 특성

시대 특성	192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대표적 디자이너	G. Chanel	R.Gernreich	Y.S Laurent	G. Armani	G.Versace
의식변화의 관점	- 전통적인 여성상을 탈피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의 이념추구	- 남녀평등 및 인간의 신체적 개방과 노출을 통한 성의 해방과 자유추구	- 남녀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도전적·합리적인 여성의 삶을 표방	- 성 역할의 구분 탈피 - 개성·자유·성공을 추구하는 자신감 있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삶 중시	- 성적 정형화 탈피 - 남녀의 감성과 신체적 관능성의 표출강화
표현의 주안점	- 여성의 신체적 자아소유(self-possion)와 성적 독립 상징 - 여성의 신체적 특성(sexuality) 부정 - 남성의 사회적인 힘과 권위, 즉 남성의 gender을 여성복에 부여	-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자유 - 인간의 내재된 성적관심 표출 및 성적 편견으로부터의 자유 - 성과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와 나체를 패션의 대상으로 표현	- 남성의 gender 이미지와 여성의 관능적 sexuality의 공존 - 대담성과 자립심을 갖춘 지성적인 여성의 '성공을 위한 의상 success dress'	- 자신있게 살아가는 현대 여성의 품위와 격조를 상징하는 success look - 남성 gender에 수반된 공격성을 여성적인 부드러움으로 중화	- 남녀 모두에게 여성의 관능적인 sexuality 부여 - 단순한 성적대상이 아닌 강하고 확신에 찬 성적 주체인 여성 - 관능적이고 과시적인 여성 - 고전적 남성의 의무를 탈피한 자유롭고 감성적인 남성
H.Wölfflin의 이론에 근거한 예술적 범주 (주 28참조)	-클래식한 표현	-바로크적 표현	-클래식한 표현	-클래식한 표현	-바로크적 표현

<p>디자인의 특성</p>	<p>-여성의 신체적 성숙 부정하고 남성적인 외모를 추구한 'Garçonne Look' -귀족 남성복의 멋과 품위를 추구한 여성의 Dandism 창출 -과다한 장식을 거부 -편안함, 넉넉함, 실용성에 근거한 단순하고 우아한 양생모드</p>	<p>-파격적인 노출과 남녀의 신체적 특성이 배제된 'Unisex Look' -남녀의 성차나 성별의 구별이 무의미한 인간자체를 표현함 -특이한 소재 활용을 통한 미래적이고 독특한 Silhouette</p>	<p>-남성용 Dinner suit의 구성요소와 장식적이고 관능적인 여성복의 요소의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양성적 복식 -최고의 격식과 조화를 갖춘 남성복의 Tailored suit를 적용한 여성복의 Dandy 풍의 다양한 전개 -한 종류의 옷감 을 이용해 단순함과 부유함을 표현한 의례적인 suit : 'Le Smoking'</p>	<p>-엄격성을 배제, 섬세하고 고급스런 테일러링 -남성복에 근원을 두고 여성미의 변화를 가져온 'Mannish Look' -남성복Silhouette에 근거하여 여객선 강조 -남성적이고 고전적인 의상에 여성적인 머리 스타일, 다리노출, 메이크업등으로 양성성 표현 -의복의 기능성, 편안함에 치중, 우아한 클래식 모드 -중간색,동색계열의 어두운 색 배열</p>	<p>-강렬한 성적매력과 모호성을 지닌 육감적인 의상 -교묘한 커팅과 신체에 밀착된 스타일 -남녀 모두에게 여성적인 관능성에 근거하여 동일한 스타일과 소재, 테크닉 적용 : 'Homosexuality' -상반된 요소의 조합을 통한 환상성, 다의성 표현 -독특한 수공예적 기법, 특수한 소재, 화려한 색상</p>
<p>주요 아이템</p>	<p>-남성복과 스포츠 웨어의 요소를 응용한 Jacket, Suit</p>	<p>-신체를 자유롭게 해방시킨 Body Wear: bra free swimsuit, tank top등</p>	<p>-턱시도와 다양한 Pants suit -리플과 레이스, 비치는 소재를 이용한 셔츠 블라우스</p>	<p>-Blazer Jacket과 스커트, 팬츠의 조화</p>	<p>-코트셋, 가터벨트, 세시한 언더웨어, 드레이프진셔츠, 스포티한 슈트,노출이 심한 드레스 : Fetish한 경향</p>
<p>소재</p>	<p>- Wool, Jersey</p>	<p>-Knit, 신축성 소재</p>	<p>-전통적인 남성복 소재와 레이스, 실크등 화려한 여성복 소재의 조합</p>	<p>-남성복의 주요 소재인 Wool.</p>	<p>-실크와 가죽, Jean, 신축성 소재, 금속, 고무등 특수 소재</p>

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었다.

- ③ Y.S Laurent은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던 1970년대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여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최고의 격식과 조화를 갖춘 남성복의 Tailored Suit의 엄격성을 여성복에 조합시켜 현대생활속에서 '성공을 위한 Seccess Dress'를 창조해 바지패션을 여성에게 정착시켰다. 그리고 여기에 관능적인 여성의 특성을 은밀히 강조하므로써 남성의 Gender 특성과 여성의 신체적 Sexuality가 공존하는 양성적인 복식을 구성하였다.
- ④ Armani는 성공적인 현대인의 이미지를 여성복에 적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간직하면서도 자신감과 지성미를 갖춘 여성상을 표현하였다. 남성복의 실루엣에 근거하여 여객선을 강조한 블래저 자켓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여 여성미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였고, 남성의 Gender 측면을 강

화하였다. 그리고 보다 여성적인 머리 스타일과 다리의 노출, 메이크업 등을 통해 남성적인 공격성을 여성적 부드러움으로 중화 시켰으며, 엄격성을 배제한 고급스러운 테일러링 기법으로 우아한 클래식 모드를 창출하였다. 그의 의상에는 남녀평등에 대한 의지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범주를 벗어나 자유롭고 개성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새로운 이미지에 역점을 두었다.

- ⑤ Gianni Versace는 성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재규정하고 성적 이미지의 혼합과 소멸을 다각적으로 추구한 디자이너이다. 그는 여성의 관능적이고 과시적인 Sexuality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보고 여성복은 물론 남성복에도 이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남성복에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Gender의 속성을 완전히 없애고 의무를 벗어난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남성상을 'Without ties'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하

였다. 이로써 여성의 성적 특성과 연관된 다의성과 환상적인 특성이 형성되었고 정형화의 탈피로 자아의식이 강한 성적주체로서의 여성의 힘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녀가 동등한 본질에서 패션이 시작되는 전위적이고 복합적인 양성적 경향을 이루었다.

이렇게 양성적인 복식은 제 3의 성에 대한 인간의 잠재된 욕망을 표현한다. 즉, 남성의 힘과 여성의 힘이 적절히 조화된 이상적인 인간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심리적 표출인 동시에 성에 대한 절대성을 부인하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다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때로는 현대인의 특성의 하나인 무관심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남녀간의 편견을 떨치고 타인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으며, 자신 또한 아무것도 추창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감정의 자유와 자기 정체성을 표출하는 메시지가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복을 통해 성의 평등을 강조하던 시대가 지나고 성별로 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잠재된 성의 양면성은 패션의 흐름과 유행에 있어서 하나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와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 본다.

이상과 같은 각 시대에 따른 디자이너들의 양성적 복식의 특징을 <표 1>로 집약하였다.

참고문헌

- 앤 홀랜더, 채금석 역, 「의복과 성」, 서울: 경춘사 (1996).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표현주의에 근거한 양면가치를 중심으로」, 경춘사 (1995).
- Carnegy, Vicky, 「Fashion of Decade: The 1960's」, New York: Facts on File (1990).
- —————, 「Fashion of Decade: The 1980's」, New York: Facts on File (1990).
- Davis, Fred,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DE LA HAYE, AMY & TOBIN, SHELLEY, 「CHANEL- THE Couturiere at work」, New York : The OverLook Press, (1994).
- Ewing, Elizabeth,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ew Jersey: Barnes & Noble Totowa (1989).
- Heibrun, Carolyn, 「Toward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Knopf (1973).
- McJIMSEY, HARRIET 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3).
- Milbank Rennolds, Caroline, 「Couture- The Great Designers」, New York: Stewart, Tabori & Chang, Inc. (1985).
- Moffit, Peggy and Claxton, William, 「The Rudi Gernreich Book」, New York: Rizzoli (1991).
- Saint Laurent, Yves, 「Exotismes」, Paris: Musées de Marseille -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1994).
- Steele, Valerie, 「Paris Fashion」, New Y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Gianni Versace」, New York: Abrams (1997).
- Versace, Gianni, & Calabres, Omar, 「Versace Signature」, New York: Abbeville Press Pub (1991).
- Wilson, Elizabeth,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ies」, London: Virago Press (1985).